

## 골판지 포장산업의 선구자 업계 첫 KS 마크 획득 및 기업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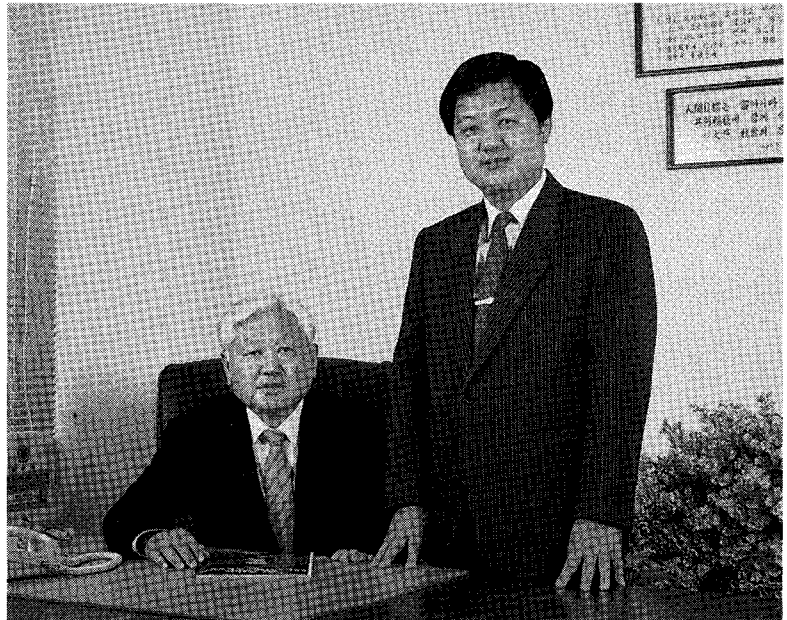
### 57년에 한국수출포장공업 설립

우리나라 전체 포장산업에서 골판지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대략 20퍼센트 이상은 되리라고 추정된다. 더욱이 골판지산업은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일찍 시작된 터라 그 역사가 짧지 않다.

이번호에서는 한국수출포장공업(주) 허석락 회장이 지나온 발자취를 따라 우리나라 골판지 포장산업의 역사를 더듬어 본다.

우리나라 골판지산업의 태동기를 대개 40~50년대로 보고 있다. 이러한 태동기를 거쳐 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성장기를 맞이하였다. 그뒤 70년대에 오일쇼크 등의 영향으로 일시 침체를 맞이하였으나 70년대 말에는 다시 호조를 보였다. 80년대 초는 국내 정치불안이 주요인이 되어 경제가 불투명해진 까닭에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골판지 업계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80년대 중반부터는 3저현상으로 일컬어지듯 국제적인 경기호황으로 골판지산업이 급신장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이때 업계에 설비투자가 늘고 신규 업체도 많이 등장하게 된다.

골판지산업도 장치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업계가 경쟁적으로 설비를 늘리고 기계화, 고속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때의 업계의 설비과잉과 후발업체의 계속적인 가세가 최근의 공급



▲한국수출포장공업(주)의 창업주 허석락 회장(좌)과 2세 경영주 허용삼 사장

과잉과 유통가격의 문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함경도 단천이 고향인 허석락 회장(1917년생)이 한국수출포장공업을 설립한 때는 1957년도이며 그뒤 35여년간 오로지 라이너 원지 및 골판지상자 생산공급에만 전념해와 가히 국내 골판지 업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세우고 있다.

한국수출포장공업의 출발보다 조금 앞선 시기인 1953년도에 신흥제지가 설립되었고 또 삼명펄프 등도 존재하였으나 지금 이들 회사는 이미 자취가 사라졌거나 다른 회사로 이름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한국수출포장공업의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 골판지

산업의 그것으로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회사 설립당시에는 골판지 포장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또 국내 시장이 협소했으며 기술 수준도 아주 낮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처음 신흥제지로부터 우리나라의 골판지 포장산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5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착수되는 60년대초까지가 국내 골판지 포장산업분야에 있어서 기업의 태동을 가져온 요람기였다고 여겨집니다.”

한국전쟁 직후인데다 모든 물자가 귀할 때 기업을 일으켜 대표적인 골판지 업체로 성장발전을 지속해 온

한국수출포장공업. 주마등처럼 흐르는 지난 날을 회고하는 허 회장의 감회가 남다른 것임은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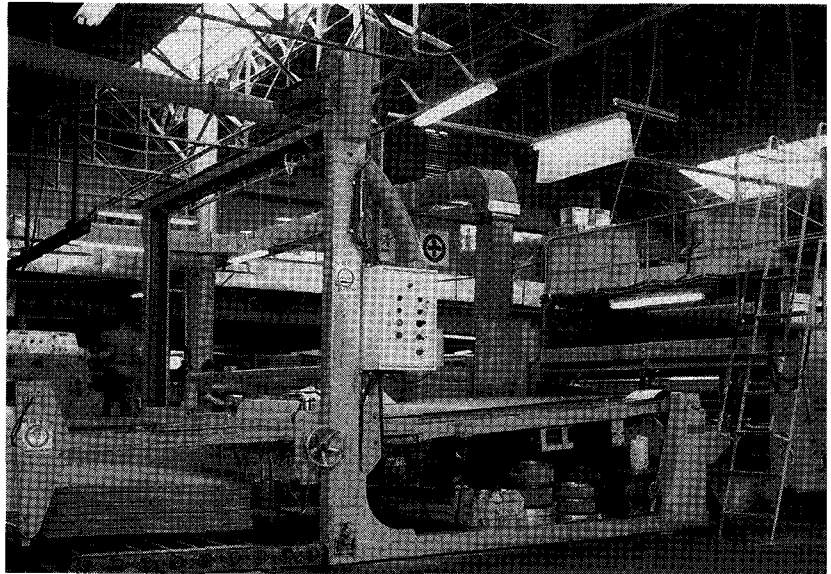
### 골판지포장공업협회 설립 주도

허 회장은 이땅의 골판지 산업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단 기업경영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회의 설립을 주도해 업계의 공존공영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는 68년도부터 70년도까지 협회의 이사장으로 재임, 골판지 산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업계의 유통질서 개선에 힘을 쏟았다.

“60년대 말에 들어서서 우리나라 골판지 포장산업이 난립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한 난립 속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골판지 산업에 대한 인식이 극히 미약했던 데다 국내 시장이 협소했으며 기술도 취약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전체 업계를 대변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협회의 존재가 필요했던 게지요.”

업계에서 허 회장의 역할 비중과 한국수출포장공업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65년도에 벌써 골판지 업계 최초로 부산공장의 KS 표시허가(골판지 115호, 골판지상자 116호) 획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허 회장은 62년, 64년도에 잇따라 부산에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공장, 골판지 원지 제지공장을 준공한데 이어 품질향상과 수요자의 니드를 만족시키고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 계속 기술개발과 설비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 74년에 업계 첫 기업공개

고객에 대한 '신뢰'와 '봉사' 정신을 모토로 이끌어 온 한국수출포장공업이 날로 성장가도를 달리게 되고 경영이 건실해짐에 따라 허 회장은 74년도에 기업공개로 단행하고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또 한번 업계의 선두주자임을 확인하게 했다.

그뒤 75년도에 오산공장을 세워 기업규모를 확대해 나갔으며 82년도에는 수출입업 허가를 내고 골판지의 수출에도 힘을 쏟아 왔다.

여기서 한국수출포장공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종업원이 350여명에 이르고, 지난해 매출규모는 대략 500억 원에 육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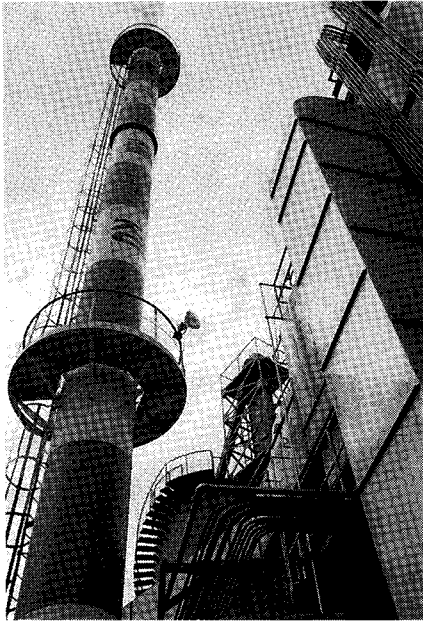
부산과 오산공장에서 골판지 원지 및 골판지상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능력은 골판지원지의 경우 연간 175,000M/T에 이르고, 골판지상자

는 연간 1억m<sup>2</sup> 이른다.

주요 설비내용을 보면 부산공장 제지기는 丸網 다통식(多筒式) 초지기로써 4line 7cylinder, 최대지폭 2,800mm, 일일 생산능력은 100M/T에 이른다. 분당 최대 스피드는 140M이고, 라이너 원지 B.C급 KA, KAW, 210g/m, 300g/m, 340g/m, 400g/m, 比破 3.0이상, 比壓強 12이상, 저평량, 高比破의 접착성이 양호한 원지를 생산하고 있다.

오산공장 제지기는 국내 최초의 FOURDRINIER ON TOP FORMER TYPE 長網 초지기이다. 이 기계는 자동제어 밸브를 갖추고 프레스의 NIP압을 200kg/cm<sup>2</sup> 까지 가할 수 있어 100퍼센트 탈수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면성(裏面性)이 좋아 인쇄적성이 매우 좋다.

평량은 110g/m<sup>2</sup>~240g/m<sup>2</sup>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분당 최대 스피드는 550m, 최대지폭 4,000mm, 분당



Rewinding speed 1,500m에 이른다.

#### 업무전산화로 경영능률 제고

“경영철학이나 경영전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와 국가발전을 생각하고 수요자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한다는 자세 말고 달리 필요할 건 없다고 봅니다.”

한국수출포장공업에서 생산되는 골판지 제품은 압축강도, 인장강도, 파열강도 등에서 타사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거래처간에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들린다. 그리고 원단에서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가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88년도에는 업무전산화를 도입해 보다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 국내 제일의 골판지 회사로서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한국수출포장공업은  
최근 안산에 제지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또다른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허석락 회장은  
이제 한가로이 여생을 보낼 만한 고령에  
접어들었지만 제품 하나하나에  
쏟아온 'KEP'에 대한 명성,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경영철학이 있기에  
'현역'으로서 그의 시간은 계속될 것이다.

허 석락 회장은 회사의 일선 경영을 2세에 물려준지가 벌써 10여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회사일을 챙기는 '현역'이다. 개인적인 면모를 보면 남달리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해 단천군 장학회를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에도 정성을 보여오고 있다.

건실한 회사 운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두 차례(81년, 87년)의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는가 하면, 88년에는 대통령훈장 목련장을 수상하기까지 했다.

최근에 한국수출포장공업은 안산에 제지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또다른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허 회장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인으로서의 의욕이 식을 줄 모른다.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활동이나 비결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늘 규칙적인 생활과 부지런히 일에 몰두하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개인적인 욕심에서라면 이제 허 회장은 한가로이 여생을 보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제품 하나하나에 쏟아온 'KEP(Korea Export Packing Ind. Co., Ltd.)'에 대한 명성,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경영철학이 있기 때문에 '현역'으로서 그의 시간은 계속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기업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문득, 사람은 떠나도 기업은 남겠지만 어쩌면 기업 그것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